

## 정기적인 건강검사만이

### 자궁암을 조기에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시범 APT 9동 68호에서 2남1녀의 평범한 가정 주부인 김숙자(35세)씨, 2남1녀의 어머니로서 가정구성원에 대해 항상 신경을 썼던 그녀는 어느날 피임을 하게 된다.

두번의 소파수술을 받은 바 있는 그녀에게는 자신의 몸에 시술한 루우프식 피임방법이 어느날 약간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평상시 보다 멘스량이 길어지고, 냉이 많아지는 그런 불안정한 생활이 계속된다.

## 자궁암



아들과의 단란한 한때



건강을 되찾은 김숙자씨

# 나의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 발견한 김숙자씨의 병상이야기

그녀는 피임시술에서 온 약간의 부작용이 자궁암으로 발전되가는 상태를 알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아빠가 사다준 여성월간지에서 건강관리협회의 자궁암검사 안내 기사를 보게 된다.

그후 그녀는 올바른 피임법과 정기적인 건강검사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진심으로 건강관리협회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여의도 강변을 따라 가면 조용한 아파트단지가 햇살을 받으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여의도 시범APT 단지-

“딩동, 덩동” 경쾌한 초인종 벨소리가 아파트단지의 고요함을 잠시 멈추게 한다.

“누구세요”

“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편집실에서 나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스무너덧평 되보이는 아파트의 단정한 내부모습이 뽐내는듯 기자를 맞이 해준다.

『건강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좀 늦었긴하지만 건강관리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건협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녀의 첫말에서 무언지 싱그러운 향내가 느껴진다.

애내가 피임수술을 하고.....

『저희집은 원래 경북 안동이었읍니다. 서울에 이사온 지는 얼마 안되었요. 처음에는 모든 생활이 답답하고 거북했었지요.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서울로이사를 왔지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었지요.』 서울의 딱딱한 생활분위기에 익숙하고자



김숙지씨는

『1년 후였어요. 평상시의 멘스의 기간이 길어지고,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냉이 많아지더군요.』라면서 지난날을 슬회한다.

노력 했다는 그녀의 구수한 경상도사투리가 유독 컷가에서 맴도는 것을 느낀다.

『자녀문제 때문에 서울에 왔지만 자녀를 그만 갖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 아빠와 상의하여 피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허나 아빠는 사회활동을 하는 바쁜 몸이라 혹시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피임시술을 받기로 했었지요.』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후 루우프식 피임방법을 사용했다는 그녀의 얼굴에서 가장을 아끼고 존경하는 참다운 부인상을 엿볼 수가 있었다.

### 처음에는 별 이상 없이 1년정도 지나더군요

『그 이후에도 부부관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 루우프식 피임이라는 것이 한번 사용하면 몇년동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에서 지워지더군요. 그러던 어느날이었던가요.?』 잠시 말을 끊는 그녀의 얼굴에 수심이 스쳐간다.

『1년 후였지요. 평상시의 멘스 기간이 길어지고,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냉이 많아지더군요.』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몸의 이상을 느끼면서 생활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이는 그녀는 항상 자신보다는 가족들의 건강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고 말한다.

『아빠가 저에게 많은 정신적인 도움을 주셨지요. 바쁜 일도 뒤로 미루고 항상 저의 몸에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가족과의 시간도 더욱더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러한 아빠의 고마움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거예요.』 애처가로서 100점짜리인 아빠는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녀는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힘이 아빠의 사랑이라고 자랑 한다.

## 여성 월간지에서 우연하게 본 한국건강관리협회

『아빠는 퇴근 하실때면 자주 여성 월간지를 사오세요. 낮에 힘들게 일만 하지 말고 쉬면서 책을 보라는 아빠의 자그만한 사랑의 선물이지요.』 아직까지도 신혼의 생활이 남아 있는 듯 한 응접실의 분위기와 그녀의 말이 참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본인스스로가 세포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자궁암자가채취기라는 것이 있다는 기사에 대해 아빠와 상의를 한후 즉시 건강관리협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상냥하고 친절한 전화상담이 무척 인상에 남았다는 그녀는 이렇게 좋은 기관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 아빠와 함께 찾아간 한국건강관리협회

『저혼자 가기가 멋적어서. 아빠와 함께 건강관리협회를 찾아 갔어요. 아빠도 환절기에 잔기침을 자꾸해서 자세한 내용도 알아볼 겸 해서지요. 그것이 올해 2월달쯤 이었을 겁니다.』 건협을 찾아가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는 그녀는 모든 병원에서 느낄수 있는 거부스러운 마음을 씻을 수 있었던 곳이 건협이라고 덧붙인다.

## 병원에서 정밀 진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검사결과가 7일쯤 지난후 집에 우송되어 왔더군요. 아빠의 종합검사결과과는 이상 없다는 통보서와 자궁암 Class II라는 이색명칭 밑에 요관찰이라는 컴퓨터 글씨가 찍힌 제 이름으로 된 파란색의 용지였지요.』 명칭만 읽어보고도 놀랐다는 그녀는 암이라는 이름에 대해 두려움이 앞섰다고 한다.

## 루우프 사용해서 유발된 질병

『건협의 검사결과통보서를 가지고 며칠 후 개인병원을 찾아 갔었어요. 병원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고 진찰을 받았지요.』 소파수술을 두번씩이나 받은 자신의 몸이 상당히 허약해 진것을 느낀 것도 그당시였다고 얘기한다. 『의사선생님께서 루우프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자궁암으로 번져가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조기에 발견하여 큰 이상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며칠동안 약물치료를 계속하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곧바로 자궁내에 삽입되어 있는 루우프를 제거했다는 그녀는 그 당시 육체적으로 가끔 찾아온 허리의 통증도 루우프를 제거한 후 많이 좋아졌다고 지난 일들을 이야기 해준다.

##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긴 경우지요

관련 정상준서울시지부검사소장은 『김숙자씨의 경우, 루우프를 오랜시간동안 삽입시키고 생활하던 중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자궁입구 및 내부에 염증이 일기 시작한 상태에서 발견 되었기에 조기에 완전 치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어 자궁암의 조기 발견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성경험이 있는 모든 여성들은 검사에 대하여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루우프를 제거한 후 생활이 편해졌어요

김숙자씨는 병원에서 루우프를 제거 한 후 모든 생활이 편해졌다면서 『예전처럼 쉬 피곤해지지도 않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으면서 정신적인 걱정도 없어졌구요.』 하루하루를 보람있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는 그녀는 매주 1회씩의 가족동반 외출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이야기 한다.



### 정상준검사소장은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 조기에 발견되면 100% 성공율을 나타냅니다.』라고 정기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정기적인 건강검사가 최선의 예방책

정상준검사소장은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 조기에 발견되면 100% 성공율을 나타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궁암의 경우 결혼한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일년에 1회내지 2회씩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궁암 같은 경우 0기에서 5기까지 구분되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확대됩니다. 歐美의 경우 자궁내암이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이 많은 상태지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서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하여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라고 강조하는 정소장의 얼굴에서 의술의 근본을 알 수가 있었다.



#### 남서중사업과장은

『정기적인 건강검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고정적인 내원자 확보와 성병사업의 확대 등으로 87년도에는 더욱 신뢰받는 서울지부가 될 것입니다.』라고 서울지부의 청사진을 밝힌다.

#### 내원자에게 더욱 신뢰받는 서울지부가 될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고정적인 내원자 확보와 성병사업의 확대 등으로 87년도에는 더욱 신뢰받는 서울지부가 될 것입니다.』 남서중서울지부 사업과장의 87년도 하반기 사업 청사진이다.

『반상회보의 중점 활용과 사업추진요원의 현지 홍보사업 강화 등 서울시지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 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각 동사무소, 보건소를 통해 순회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홍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남과장은 사업전략 분석형으로 유명하다.

『사회체육과 건강을 연결시켜 건강검사를 유도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건강검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되었기에 다각적으로 사업방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검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지부 검사사업의 다각적인 청사진을 말하는 남과장은 항상 최선을 다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발전하는 서울시지부의 미래 모습을 기자와 함께 그리자고 당부하기도.

또한 남과장은 현재 서울 4개지역에 설치된 성병진료사업에 대해서 『올해안에 주 2,000여명을 검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성병사업은 일등국민으로 발돋움하는 예비사업이기에 100% 발견에 힘쓰겠다고 강조한다. (오일민 글)